



리움의 외부전경.

“금동대탑(국보213호)은 고려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5층 목탑을 모방한 대표적(중략)… 개태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PDA단말기에

서 출러오는 음성안내를 따라 천년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왔다. 관람객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평소 도록으로만

보아왔던 국보급 성보(聖寶)를 감상하는데 몰두 했다.

서울 목격산(南山) 기슭의 한갓진 고급 주택가쯤으로 여

겼던 곳에 한국 최고의 ‘명품’ 미술관 ‘리움(관

장 홍라희)’이 10월 19일 문을 열었다. 미술관 관계

자의 안내대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내려

1번 출구를 나서자 낮은 이태원 초입길이 나

왔다. 이곳이 한강을 드러

나들던 나뭇배와 갈매기를 내려다보면 포구였다

는 것을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제는 부호들의 저택과 대사관들만 가득한 골

목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적 건축가 3인이 심혈을

기울여 지었다는 리움의 단아한 모습이 펼쳐졌다.

현관을 들어서자 천정까지 뿔러

있는 원주(圓柱) ‘로분다’의 자연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로비가 한눈에 펼쳐졌다.

관람에 앞서 안내데스크에서 손바닥크기의 PDA(개인

정보단말기)를 지급받았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PDA가 소

리를 내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음성으로 제공하

는 서비스였다. 작품 앞에 서면 바닥에 깔린 동전크기의

센서를 통해 각 작품정보와 작품설명, 자세히 보기 등이

단말기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났다.

고미술관인 ‘뮤지엄1’을 먼저 둘러보았다. 4층 청자 전

시실에서부터 원형의 둥근 계단을 따라 각 층으로 이동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시실의 배치가 특이했다. 현재 전

시중인 작품은 모두 120여점으로 이중에는 국보 25점, 보

물 35점이 포함돼있다. 개관전시인 만큼 삼성그룹의 창립

자 호암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남다른 열정으로 수집해온

미술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들이 엄선했다. 사실상 삼

성문화재단 산하의 용인 호암미술관, 서울 호암갤러리, 광

화문 로댕갤러리에 소장된 국내의 명작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리움을 관람하면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의 ‘진품’을 한자리에서 모두 보고 나오는 셈이다.

4층 청자, 3층 분청사기, 2층 서화, 1층 불교미술과 금속

공예 전시실에는 한국미술을 대표할 만한 도자기류와 조

선 시대 화단을 풍미했던 서화가들의 대표작, 불화, 불상,

등 각종 불교미술작품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박 과정은 “국

립박물관의 규모를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리움의 한국 고

미술 컬렉션은 질과 양에서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미술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동대탑’이

다. 이렇게 크고(155cm) 섬세한 청동 주물탑을 만든 고려

장인은 누구였을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문양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새겨놓은 고려인의 솜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늘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용두보당(국보 136호)’을 실물

로 보는 즐거움 또한 크다.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

경(大方廣佛華嚴經)>’도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통

일신라 경덕왕 13년(754) 8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황룡사

의 연기법사가 발원하여 만든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

사경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경

전이다. 신라 종이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움 그 자체다.

14세기 고려불화의 전형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와 ‘지장도(보물

784호)’의 상설전시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내 10여점

밖에 남아 있지 않는 고려불화는 보존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상설 전시를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직접 실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불교미술실은 철저한 온·습도 관리는 물론 유물의 보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기법에서도

밑에서 위로 불상의 상חו를 올려 보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관객이 불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배려했다.

불교미술실의 손은석 선임 연구원은 “뮤지엄1의 1층에

불교미술실이 자리 잡은 것은 불교미술이 한국고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른 것도 있지만 각 층을 관람한 뒤

마지막으로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10월19일 개관...예약제로 관람
작품정보·해설 PDA로 음성 제공
佛美館 마음정화 차원 1층에 설계
고려불화·금동대탑 등 국보 다수



건물내부에는 ‘블랙박스’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환하게 불을 밝힌 리움의 야경.

불교미술실은 철저한 온·습도 관리는 물론 유물의 보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기법에서도

밑에서 위로 불상의 상חו를 올려 보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관객이 불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배려했다.

불교미술실의 손은석 선임 연구원은 “뮤지엄1의 1층에

불교미술실이 자리 잡은 것은 불교미술이 한국고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른 것도 있지만 각 층을 관람한 뒤

마지막으로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걸작의 魂을 만나는 ‘리움’

Leeum

■ 건물 자체가 세계적 작품 (마리오 보타·장 누벨·렘 쿨하스 설계)

‘리움’은 삼성 창업자 일가의 성 ‘Lee’와 ‘Museum’의 합성어다. ‘뮤지엄1’ ‘뮤지엄2’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3개 동으로 구성된 리움은 2400여평의 대지에 연건평 8500평 규모로 야당이다. 하지만 예술적 가치나 시설면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건물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건축가 3명의 독특한 개성과 혁신적 기법이 돋보인다.

‘뮤지엄1’은 고미술관으로 스위스 출신의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한 직육면체와 원추형의 건물, 외관은 테라코타로 마감했다. 각층은 나선형의 계단을 통해 연결 되어져 있어 4층에서 1층까지 달팽이관을 돌 듯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내려올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뮤지엄2’는 근현대미술관으로 프랑스 출신의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했다. 밖에서 보면 건물자체가 설치작품이다. 스테인레

스 강관을 상자모양으로 쌓아 전시공간 겸 외벽이 되게 만들었다. 뮤지엄2에는 이종설 박수근 서호도 이불 요섭보이스 백남준 등 국내외 유명 미술가들의 대표작 70여점이 전시돼있다.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 쿨하스(Eem Koolhaas)’에 의해 전혀 다른 느낌의 세 건물을 하나로 융합시켜 놓았다. 내부공간은 알차보였지만 밖에서는 다소 밋밋하다는 느낌이 든다. ‘보이지 않는 건축’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한다. 일렉산더 캄파의 모빌 작품이 놓인 테라스는 주변 주택과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출입을 통제해 아쉬움을 남겼다.



네덜란드 출신의 ‘렘 쿨하스(Eem Koolhaas)’에 의해 전혀 다른 느낌의 세 건물을 하나로 융합시켜 놓았다.



금동불상의 스페이스는 독일의 ‘글라스바우 한(Glasbau Hahn)’사가 제작한 것으로 세계최초로 천정에 고정된 독립장 형식을 채택했다.



‘리움’ 미술관 홍라희 관장
“리움 미술관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미술 작품을 보다 폭넓게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홍라희 관장은 오랫동안 불교와 인연을 맺어온 불자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여성불자모임인 ‘불이회(不二會)’의 회장으로 매년 젊은 불교인재를 발굴을 위해 ‘불이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홍 관장은 불이회를 통해 인재발사와 신행,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홍 관장은 현재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산하의 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로댕미술관 관장을 겸하고 있다.

‘리움’을 이용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전화예약제로만 관람이 가능하다.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미술작품과 떠나는 시간여행전’이 열리고 있다. 하루 허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4시 까지 가능하다. 휴관일은 매주 일·월요일이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 버스 110, 0014, 0015번을 이용하면 된다. (02)2014-6901 www.leeum.org

문명·미래·삶·창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 사주박사 (www.drsoju.com)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은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www.drsoju.com